

[보도자료] 최고와 최고가 맞붙는다! 20년 만의 귀환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 D-1! 게스트 이동국·김은중, 영입생 최초 인터뷰 세대 잇는 총력 중계 예고

2026. 2. 20.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 스페셜 게스트 이동국·김은중

- 더블 우승 달성 '전북 현대',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의 '대전', 최강 중 최강 가리는 단판 승부 D-1
- 양팀 레전드 이동국, 김은중 출격, '백 투 더 2006' 오프닝, 영입생 인터뷰 담은 20년 만의 슈퍼컵 특집
- 2월 21일(토) 오후 1시부터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생중계 와우회원 누구나 시청 가능

2026. 02. 20. 서울 - 최강 중 최강의 단판 승부 'K리그 슈퍼컵'이 내일 20년 만에 돌아온다. 쿠팡플레이는 21일(토) 오후 1시, 더블 우승 달성 '전북 현대'와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의 '대전하나시티즌'의 빅매치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을 20년 귀환의 의미를 담은 특집 중계로 선보인다.

쿠팡플레이는 슈퍼컵의 20년 귀환을 기념해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을 대표하는 두 전설, 이동국과 김은중을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했다.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두 주역은 프리뷰쇼를 통해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는 한편, 후배 선수들을 직접 만나 세대를 잇는 장면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킥오프 전에는 두 레전드가 슈퍼컵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에 입장해, 새로운 K리그의 전설

이 탄생하는 이번 대회의 서사에 무게감을 더할 전망이다.

전북 현대를 대표하는 '라이온 킹' 이동국은 구단 최초의 영구 결번 선수이자, K리그 최다 득점(228골), 최초의 70-70 클럽에 가입한 독보적인 존재다. 이에 맞서는 김은중 역시 선수 시절 날카로운 공격 결정력으로 '샤프'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전을 상징해온 인물로, 프로 선수 생활의 시작과 마침표를 모두 대전에서 찍은 구단의 역사적 아이콘이다.

프리뷰쇼에는 배혜지 아나운서와 이근호 해설위원이 진행을 맡아 두 레전드와 함께 전술 분석, 구단 비하인드 이야기를 포함한 밀도 높은 토크를 펼친다. 이번 슈퍼컵을 통해 쿠팡플레이 중계에 첫 합류하는 배혜지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진행으로 현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 양 팀 라커룸을 찾아가는 밀착 인터뷰를 통해 경기 직전의 긴장감과 선수들의 각오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달한다.

중계진의 특별한 변신도 관전 포인트다. 이날 중계를 맡은 양동석 캐스터와 황덕연 해설위원은 슈퍼컵 부활을 기념해, 20년 전 유행 패션을 재현한 '백 투 더 2006' 뉴트로 오프닝으로 시청자들에게 향수와 웃음을 동시에 선사한다. 또한, 황덕연 해설위원이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오베르단(전북)과 엄원상(대전)을 직접 만나는 '웰컴 인터뷰'도 마련됐다. 시즌 판도를 가를 영입생들의 각오를 슈퍼컵 무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황덕연 해설위원은 "정정용 체제로 첫 공식전을 치르는 '더블' 전북이 지난 시즌 대전 상대 무패의 흐름을 이어갈지, 송민규가 떠나고 김승섭이 합류한 전북의 날개가 보여줄 파괴력이 관건"이라며, "엄원상·루빅손 등 '폭풍 영입'으로 이번 시즌 우승을 정조준하는 황선홍호가 대전에서 3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첫 무대인 이번 슈퍼컵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낼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쿠팡플레이 K리그 슈퍼컵 2026'은 와우회원이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상세 정보는 쿠팡플레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중계뿐 아니라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한 '직관 풀코스' 혜택도 마련됐다. 직관 전용 '1994 버스'를 비롯해 축구를 사랑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중립석' 구역, 슈퍼컵 스페셜 지류 티켓 등 경기장 안팎으로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더해져 팬들에게 관람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